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구 만든다

정부, 일상속 인문정신 고양 7대 과제 제시

대학 인문학 이수·기초소양 함양 통합형 교육

일상 속에서 우리 인문정신문화를 고양해 사회의 품격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7대 중점과제와 전담기구 설치 추진 등 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4차 회의를 열어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보고와 함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융성위 산하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호)가 주관해 마련한 중장기 정책방향 보고서에는 ‘인문정신을 시민의 지혜로’라는 기조 하에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추진과 재원 확보, 초·중·고등교육 과정에서 인문기반 교육의 도입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위는 인문정신 진흥을 위한 제도화의 필수 과제로 지난 1965년 설립된 미국의 국가인문진흥재단(NEH)과 같은 국가 차원의 진흥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특위 보고와 관련해 법 제정과 전담 진흥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7대 중점 과제는 ▲초·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함양 교육 강화 ▲인문정신 기반 대학 교양교육 개선 ▲인문 분야 학문 육성 ▲전국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체험 확대 ▲인문자산과 디지털 연계 프로젝트 지원 ▲은퇴자의 청소년 교육 참여 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 다양화 ▲국

제교류 활성화 등이다.

교육부는 이과 대학생이라도 일정 인문교양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을 통해 인문교육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인문학 전공 대학생이 비전공 학생을 돕는 ‘인문멘토단’을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참여 학생에겐 학기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생들로 하여금 소의계층을 상대로 재능기부를 하는 ‘인문 재능기부단’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2단계 인문한국(Post-HK) 사업을 통해 소규모 인문랩(lab)에 1억~1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초·중등 분야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학과 과학기술 등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정한다.

문체부는 ‘길 위의 인문학’ 실현을 모든

로 각 지역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과 연계해 문화 체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지역 내에서 문화 향유의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의 전면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를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퇴자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생나눔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혹은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인문 교육 행사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문화융성위 위원, 김동호 문화융성위 위원장, 박 대통령, 백지는 철학하는 엄마들 회원. /연합뉴스

연말까지 ‘5대 핵심 부패’ 특별감찰·수사

부패척결 장관회의… 부패사범 기록 남기고 처벌 강화

정부는 6일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를 선정, 연말까지 1차 특별 감찰과 비리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입 비리 ▲국가 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를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교통수단의 안전 부품 비리, 군납비리, 복지 부정수급, 건

축·위생 인허가, 공공기관 인사 등 분야별 비리들에 대해 연말까지 부처합동으로 특별 감찰·감사 및 비리 수사에 나선다. 필요 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 주요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부패행위를 주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정부업무평가에 기관장의 부패척결 추진 의지와 실적도 반영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내년 업무보고에 부

패척결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반부패 우수 공무원에 대해 인사우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일정 기간 비리가 없는 기업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해 예산편성 등에서 배려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와 청렴도 우수기업에 공공기관 납품·입찰시 가산점을 주는 ‘청렴기업 인증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부 고발자에게도 ‘회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

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지난달 25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의 부패척결 추진단을 통해 시행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곳곳의 부정·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국가 대혁신은 불가능하며 부패척결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종합적인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불퇴전의 각오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과 달성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中, 한국인 마약사범 2명 사형 집행

1명도 곧 추가 집행

정부 “매우 안타까워”

중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 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백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작년 9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올 3월 최고인민법

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중국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한 형 집행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죄로 청다오에서 지난 2004년 5월 사형이 집행된 S(당시 64세)씨 이후 첫 사례다. 이번 사형 집행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형당한 사례로도 3번째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중국 내 1심 재판에서 20여 명의 한국인이 마약 범죄와 살인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이후 형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시, 中 관광객 유치 네트워크 구축

광주시가 중국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6일 베이징 21세기 호텔에서 광주시관광협회, 중국 5개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중국 여행사들은 ▲광주를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판매 촉진 ▲광주 관광상품 판촉을 위한 공동 마케팅활동 및 중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 협력 ▲한·중 민간문화·체육 교류행사 단체를 모객해 교류행사 진행 ▲광주 인근 공항, 항만을 이용하는 관광상품 개발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광주를 목적지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정보 및 관광자료 제공 ▲광주를 목적지로 하는 관광상품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한·중 민간문화·체육 교류행사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윤 시장은 이어 중국 현지의 관광·문화·경제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차이나 프렌들리 네트워크링 만찬’을 가졌다.

윤 시장은 만찬 자리에서 광주시의 중국에 대한 ‘프렌들리’ 비전을 제시하고 중국 정부, 기업 등 경제계, 관광업계가 광주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송상락 감사관 임명

전남도는 6일 기획조정실장(이사관)에 송상락(52) 방위사업청 감사관을 임명했다. 고충 출신인 송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광주교과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광주시교육원 교육운영과장과 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 안전기획팀장·안전정책협력과장 등을 역임했다. 꼼꼼하고 치밀하지만 부드러운 일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둑하다. 1990년 공직에 입문,



지난 2005년까지 광주시에서 근무하다 안전행정부로 자리를 옮긴 뒤 9년 만에 전남도의 핵심요직에 앉게 됐다.

한편 나승병 전 기획조정실장은 정년을 1년6개월 앞두고 최근 명예퇴직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 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점
SIEMENS
BVC(보청기)
수령
상무점
지멘스 상무점
여영빌딩5층 501호
동행(문천지점)
미바들(금강점)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